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10월호 후보도서



고구려 해양사 연구

윤명철 지음 | 사계절 | 536쪽 | 값 33,000원

고구려의 성장과 멸망을 해양사 측면에서 연구한 학술교양서. 저자 스스로 고구려 발자취에 따라 뗏목을 타고 항해하는 등 실증적 연구 노력이 콘텐츠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전 고구려 연구서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획득했다.



색깔논쟁

김현식 지음 | 새로운사람들 | 474쪽 | 값 16,000원

한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색깔론을 사회적 담론 차원에서 탐색한 한국사회 분석서. 색깔론의 생산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폐쇄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색깔론의 중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지식의 무늬

박형준 지음 | 현대문학 | 220쪽 | 값 8,500원

깊이 있는 눈으로 삶의 곁을 투시해 온 신예시인의 산문집. 빠르고 경쾌해야 주목받는 시대에 느낌의 의미는 무엇이며, 시적 성찰은 어떤 사유단계를 거쳐 생산되는지를 시인 자신의 생활과 함께 보여준다.



한 남자의 그림 사랑

김순웅 지음 | 생각의나무 | 268쪽 | 값 9,800원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20년 넘게 그림을 수집해 온 저자가 어느 날 서울옥선의 ceo로 변신하게 된 인생이야기와 그림 사랑을 담은 에세이집이다. 자본주의의 한 중심으로 들어온 그림의 예술성 경제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로 손색이 없다.



허브 한반도

현대경제연구원 지음 | 거름 | 240쪽 | 값 15,000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탐색한 경제교양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어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거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스파이

최인석 지음 | 창작과비평사 | 436쪽 | 값 9,500원

불의와 폭력이 구조화된 삶의 조건에 대항하여 예술성 짙은 소설을 발표해 온 중견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자학을 극단으로 몰고나가며 권력의지를 발산하는 인물물 내세워 허위와 반도덕의 욕망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서울생활의 재발견

김수미 지음 | 현실문화연구 | 224쪽 | 값 18,000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부각된 도시문명의 의미를 서울이라는 피사체와 그림을 통해 뚜렷한 암각화처럼 그려낸 인문교양서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진자료와 그림들이 서울생활의 리얼리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우리 역사 최전선

허동현 박노자 지음 | 푸른역사 | 380쪽 | 값 13,000원

보수와 진보를 주제로 한국의 근대 100년에 대한 생산적 논쟁을 시도한 보기 드문 역사교양서이자 인문사회서라고 할 수 있다. 유교와 사회주의, 후세인과 박정희 등 제도와 인물의 대비를 통한 신선한 구도 찾기가 돋보인다.



오페라. 행복한 중독

이용숙 지음 | 예담 | 404쪽 | 값 32,000원

오페라의 음악적 측면과 함께 해당 오페라가 태어난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를 아우른 예술교양서이다. 오페라 탄생과 유관한 귀족과 시민계급 간의 갈등, 폄박받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집시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 돋보인다.